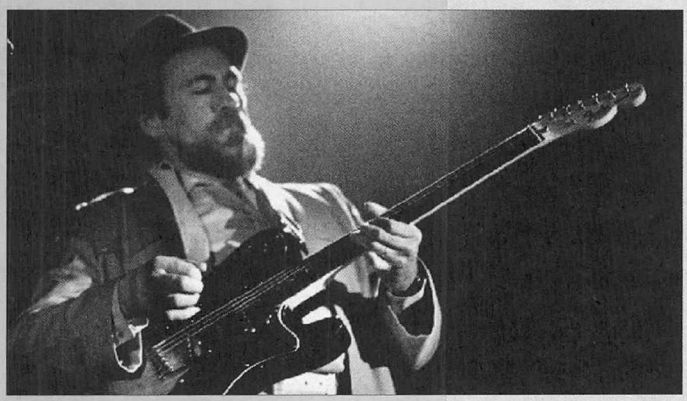
다시 오지 않는 메시아를 향한 독백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와 로이 부케넌의 〈메시아는 다시 오시리〉

김연수 | 소설가



로이 부케넌의 〈메시아는 다시 오시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까닭은 작품 제목과 그에 걸맞는 도입부의 비장한 독백 때문이다. 부케넌의 죽음을 소설적 에피소드로 활용한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는 역설적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고 말한다.

1988년 8월 14일, 서울올림픽을 두달 정도 앞둔 시기.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기타리스트의 자살 소식을 전한다. 그 사내는 미국 버지니아 주 레스턴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저녁 10시, 그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입고 있던 자신의 셔츠를 벗어 목에 감고 자살해 버렸다는 발표가 나온다. 그가 연주한 음악을 떠올리면 어처구니 없는 자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팬들은 그의 죽음에 경찰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상황이다.

블루스적인 기타 톤으로 강림하는 메시아

우리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그의 죽음은 곧바로 우리 소설 속으로 들어왔다. 장정일의 첫 장편소설 《아담이 눈뜰 때》(미학사)에는 이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됐다.

팔월 중순이던 어느날 오후쯤이었다. 열람실에서 《빈 집》을 번역하고 있는데, 현재가 찾아왔다(…). 두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으나 조금 여위어 있었고 워크맨을 허리에 맨 대신, 한 손에 도시락만한 카세트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빨리 나가! 추모식을 치뤄야 해."

나는 영문도 모르고 내 소지품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무슨 추모식? 누구를 추모한단 말이야?"

"로이 부케넌이 죽었어. 자살을 했다나 봐."

현재는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죽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다.

이들은 시내를 나와 대구 인근에 있는 유원지인 강정으로 간다. 거기서 모래밭에 기타를 내려 놓고 석유를 끼얹었다. 그리고 카세트에 로이 부케넌의 테이프를 꽂고, 그의 대표작인 〈메시아는 다시 오시리(The Messiah Will Come Again)〉를 틀었다. 서울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1988년 여름,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으나 가장 훌륭한 한 기타리스트에 대한 지극히 소설적인 추모식은 이와 같이 벌어졌다.

소설에 나오다시피 로이 부케넌의 대표작은 1972년 발표한 앨범 'Roy Buchanan'에 실린 〈메시아는 다시 오시리〉다. 방송에서도 흔히 나왔기에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곡이다. 기타 줄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벤드 기법,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미끄러지던, 손가락을 옮기는 슬라이드 기법 등이 난무하는 난해한 곡이다.

하지만 이 곡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까닭은 이런 기타 주법이 빚어낸 블루스적인 나른함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시 오시리'라는 제목과 그에 걸맞는 도입부의 비장한 독백 때문이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처음 음악을 접한 로이에게 이 곡에 덧씌워진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흑인음악(블루스)적인 색채는 태생적이었다. 로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처럼 블루스적인 기타 톤과 함께 강림했으리라. 그런 그가 좁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셔츠를 목에 감고 자살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 덧없어 보인다.

두 어린 연인이 발견한 1988년의 낙원

《아담이 눈뜰 때》에는 수많은 팝송이 등장한다. 장정일 그 자신이 〈p.13~35〉란 시에서 '아, 나는 영원한 중학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팝송을 듣고 있으니'라고 읊었던 그대로다. 이때 록 르네상스가 사실상 끝난 1970년을 전후해 죽은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 짐 모리슨을 일컬어 '3J'라고 말할 때, 팝송이란 단순한 외국음악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된다. 로이 부케넌의 음악이 기타로 연주하는 '찬송가'가 되는 까닭은, 그리고 그의 죽음에 기타를 불태우는 의식(이는 원래 지미 헨드릭스가 공연에서 한 행위다)을 행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한편 이 추모식이 '강정'이란 곳, 〈강정 간다〉란 시에서 장정일이 낙원에 비유한 그곳에서 벌어지는 것도 흥미롭다. 1988년 대선에서 야당 통합이 실패한 뒤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고 사업장마다 데모가 벌어지고 시청 앞에는 서울올림픽 개막식까지 남은 일수를 개시했던 시절, 사회에서 낙오한 두 어린 연인이 발견한 탈출구가 바로 강정이다. 메시아는 다시 올 것인가? 메시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아담은 비로소 눈을 뜬다.●